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9)

宋 旼 求
송민구건축연구소

4.7. 결론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1차적 기능과 2차적 기능의 복합체로 구분하여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회전곡면의 돌들의 크기는 그것의 중심각이 이미 알려진 별들의 방위각임이 분명하다.

현재 돌들이 일그러져 있는 상태라든가 옛날의 관측방법은 원시적인 기기에 의한 목측이었을 것이라는 점과 별들의 고유운동 등으로 인해 방위각에 대한 중심각의 완전무결한 일치는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분석결과로 보아 극히 근소한 차이를 1300년전 것으로서 긍정한다면, 회전곡면의 돌들의 크기가 불규칙한 것은 그것의 중심각이 별들의 방위각을 나타낸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옛날의 천문관측은 점성술에 목적이 있었다. 그리하여 태양이 남중하였던 자리 다시 말하여 일남중고도에 밤에 별이 위치하는 것을 보고 점을 치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늘에 무수히 깔려있는 별중에서 이미 알려진 별들의 상대적 위치를 미리 관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일남중고도로 남중하는 별과의 관계를 관측하므로써 어떤 판단을 내렸을 것으로 본다. 그렇지 않고 어떠한 기준이 없이 무작정 남중하는 별을 관측한다는 것은 관측 자체도 그러하거니와 점성술에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한 까닭에 돌들의 중심각이 별들의 방위각과 동지, 춘분, 하지 등에서 극히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는 것이며, 일남중고도로 남중하는 별을 관측하기 위하여 회전곡면 모선(母線)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할 때 침성대는 고대 인류가 지닌 다시 없는 과학적 조영물이며 현존하는 것으로서 세계에 자랑할 우리민족의 보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임의의 날의 일남중고도를 미리 아는데 사용되는 것은 회전곡면 모선이며, 그것은 회전곡면 하단에서 24단 상단까지가 황도를 나타낸 곡선이다. 그 곡선은 황도의 파장의 2분의 1만을 나타낸 것으로서 변곡점(變曲點)은 12단 상단에서 이루어지는데 중앙 개구부의 하단에 해당한다. 춘분 및 추분 때의 일남중고도는 같은 까닭에 그 변곡점으로써 두 절기의 일남중고도 측정 때 겸용된다. 측정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어 약하겠으며, 황도상에서 춘분점, 추분점의 적위(赤緯)의 좌표는 같으므로 그것을 원점으로 하여 지금의 수학적 표현으로 말하면 \arcsin 곡선을 창안한 것은 기하학적으로도 절묘한 방법이라고 하겠다.

그 회전곡면은 천체의 상태에 관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하면, 3개소의 정자석은 관측에 쓰이는 부분이며, 형태로서도 하나는 원을 다른 하나는 정 4각형을 이루어 천원지방의 관념마저

지니고 기능이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특히 25, 26, 27단은 회전곡면 모선에서 직선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별들의 관측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이외에도 27단은 후술하겠으나 가장 두드러진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관측에 쓰이는 정자석, 또 초석 및 지대석은 그 기능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초석은 구성(九星)의 소재를 알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며, 지대석은 아마도 년신방위(年神方位)를 정하는데 주로 쓰이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다역점(易占)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초석, 지대석의 정 4각형의 중심, 그리고 정자석들의 내측 정 4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하지 때 일남중고도로서 비(髀)의 높이 41에 대하여 그림자의 길이가 9가 되는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다. 그 위치는 계산상으로는 그것이 놓여야 할 위도로부터 불과 2.275초 밖에 오차가 없어 어떻게 1300년전에 그렇게 정확한 위치를 정할 수 있었는가 도시 불가사의한 일이다.

겸하여 비의 높이 41에 대하여 그림자의 길이가 9라는 것은 주역 계사상전(周易繫辭上傳)에 암시되어 있는 직각 3각형에 관한 것으로서 9 : 40 : 41이라는 3재(三才)의 인(人)과 천(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한편, 밑변이 9 높이가 41인 직각

3각형은 한 각의 크기가 12°38'로서 천문관측을 하는데 있어서 실로 신비로운 성질을 지니고 있으며 또 첨성대 축조의 기본직각 3각형을 이루고 있다. 즉, 3개소의 정자석들은 진북에 대하여 서쪽으로 또는 정남에서 동쪽으로 12°38' 편각되어 있어 그것이 천문관측에 유효한 여러가지 기능을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지니고 있다.

초석 및 지대석의 대각선의 하나는 동지 일출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1년 중에서 일남중고도가 가장 낮은 날로서 동지의 일출이 시작되는 방향인 고로 1년의 마지막이면서 시작이라는 또는 죽음과 부활의 두 의미를 동시에 지닌 것으로 간주한 까닭에 그 선상에 왕능의 위치들을 정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19단 정자석은 19년 7 윤법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도 하거니와 그것이 형성하는 내측 정 4각형의 대각선의 교점은 천구의 중심이다. 또, 태양이 가장 높이 뜨는 하지 때 비의 높이 41그림자의 길이 9가 되는 바로 그 위치와 일치하는 점으로서 다른 정자석의 대각선의 교점도 그것과 일치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점이 된다. 그 19단 정자석의 동남쪽 한 모서리는 그것과 정자석 중심과 이은 선상에 토함산 산정이 위치하여 아마도 영구히 움직이지 않는 정상을 하나의 기점으로 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25, 26단의 정자석은 관측의 중심부로서 앞에서 설명한 바 있는 여러가지 관측이 행하여졌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춘분점의 시각 측정

23단 상단 또는 24단 하단에 맞추어 마루를 설치하였을 때 그것이 관측에 알맞는 것이 되기도 하거니와 29단 정자석의 음영이 그 바닥의 중심을 통과할 때가 춘분점의 시각이 된다. 만일에 그러한 방법으로 춘분점 시각을 측정하였다고 하면, 지금까지 알려진 측정방법과는 전혀 다른 독창적인 방법이 되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한편, 동지점의 시각은 26단 정자석과 같은 높이의 측정대에서 음영의 위치는 달라지나 춘분 때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하여 동지를 중심으로 하여 전후 3개월간의 추분, 동지, 춘분의 시각이 측정되므로써 1년

의 길이를 정하는데 기본을 삼게 된다.

b) 그와 아울러 정자석들은 12°38' 편각되어 있는데, 그 편각된 각으로써 목성을 관측하고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7년 6 윤법이라는 새로운 방법을 안출할 수가 있다. 옛 중국에서 목성의 공전주기로서 1년의 날수를 정하였다는 것이 그러한 방법이였을지도 모르나 지극히 신비롭기만 하다. 17이라는 수 자체도 8 : 15 : 17이라는 3제에서 8은 팔괘 또는 인이요 17은 천으로서 의미를 지니고 있고 6은 음효(陰爻)의 값을 나타내는 고로 태음력을 암시하여 이용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

c) 25, 26단의 돌들의 중심각 또는 25, 26단의 회전곡면에서의 돌출된 부분을 이용하여 파군성이 그리는 12직(十二直)을 관측하여 밤의 시간을 측정한다. 25, 26단의 돌들의 배열을 진북방향, 12°38'의 편각, 진북방향에서 30°등의 위치에 잘 배치되어 있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d) 겹하여 24단 상단까지의 회전곡면 모션을 이용하여 임의의 날의 일남중고도를 예측하며 그에 해당하는 단에 있는 돌들의 중심각은 그 임의의 날의 잘 알려진 별들의 방위각으로서 그것과 일남중고도로 남중하는 별의 상대적 위치를 관측하는 것이 25, 26단 정자석의 남측에 있는 것의 역할이다. 북측에 있는 것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별들을 관측하는데 쓰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나라와 왕가의 길흉을 점치기도 하거니와 특히 27단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들이 위치한 방위각을 나타낸 것으로서 관측에 쓰이기 보다는 길흉의 방향을 판별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e) 이상과 같은 정밀한 천문관측을 하기 위한 척도가 되는 것은 29단 정자석이다.

그 내측의 정 4각형의 1변의 길이는 동위척(東魏尺)으로서 730푼이 된다. 또, 황룡사 목조 9층탑은 백제 장인들의 손에 의해 동위척을 써서 건립된 것으로 밝혀졌는데, 첨성대도 같은 시기에 축조되어 필시 동위척이 사용되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첨성대의 중심에서 29단 내측의 1변에 이르는 길이는 365 푼

이 되며 그것을 직각 3각형의 밑변으로 하고 정사석상의 길이를 측정하면 지극히 정밀하게 각도를 측정할 수 있다. 말하자면 지금의 3각법의 tangent 값을 읽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1푼은 약 3.5mm에 해당하며, 1

푼의 중심각은 $\tan^{-1} \frac{1}{365} \approx 9'.42$ 으로서 그것의 반을 목측으로 읽는다면 5'까지 읽을 수 있다. 그렇듯 29단 정자석은 정밀한 각의 측정이 가능한 크기이며, 그에 회전곡면에 있는 임의의 단의 돌들의 중심각 즉 이미 알려진 별들의 방위각을 정자석상에 옮기는 역할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옛 중국에서는 태양이 1일 1호씩 이동하여 1년에 365도 이동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각도의 크기와는 다르며 1도가 59'.178에 해당한다. 그것과 유사한 개념인데, 옛 중국에서 생각한 식으로 하면, 원은 360°이며 그것을 365등분한 각을 구하는 문제와 같다.

그러나 그것은 기하학적으로 해답을 구함이 불가능한 문제이다. 360°를 5등분한 72°를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72°를 73등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주어진 각을 3등분하는 것은 기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거니와 하물며 73등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한 까닭에 첨성대의 경우는 29단 정자석 내측 정 4각형의 변의 길이를 동위척 730푼으로 하여 365의 배수에 맞춘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초석, 지대석, 회전곡면의 돌들의 중심각, 회전곡면의 모션, 3개소의 정자석, 27단의 판석, 29단 정자석의 길이 등 전부가 서로 연관되어 기능하게 되고 천문관측을 하도록 된 구조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현재 우리들 농가에서 쓰고 있는 민력(民歷)에 나타나는 사항을 보면 점성술의 흔적이 남아 있어 옛 역법작성이라는 것은 그러한 형식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현대 천문학적 요소를 지닌 것을 제외하면 첨성대에서 천문관측을 하여 역법을 작성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첨성대의 1차적 기능은

천문관측을 위한 것으로서 또 독창적인 여러가지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초석 및 지대석의 대각선의 하나가 동지일출의 방향과 일치한다. 그 대각선의 방향에 따라 서북쪽으로는 김유신 장군묘, 미추왕능, 내물왕능이 자리잡고 있으며, 동남쪽으로는 선덕여왕능, 불국사의 어귀에 이른다.

29단 정자석 또한 한 모서리가 동지일출방향과 일치하는 동시에 다른 한 모서리는 오능의 방향과 일치하며, 그 정자석이 진북(眞北)과 편각된 각도가 12°38'로서 12°38'는 천문관측의 여러 면에서 이용된다. 그 12°38'라는 것은 3재의 9:40:41에서 인인 9를 밑변으로 하고 천인 41을 높이로 하는 직각 3각형의 한 각으로서 사람과 하늘이 일체가 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 오능의 방향으로 첨성대를 중심하여 정수(井宿)의 별자리가 위치할 때 유수(柳宿)의 별자리에는 불교를 공인한 법흥왕능, 신라통일의 위업을 시작한 무열왕능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첨성대를 중심으로 하여 토함산 산정에 귀수(鬼宿)의 별자리가 들어설 때 귀수의 별자리 양측은 유수와 정수의 별자리가 위치하므로 아마도 토함산을 불교의 성산으로 간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토함산 산정에서 동지일출방향으로 정확하게 동해 바다에 문무왕의 대왕암이 자리잡고 있어 토함산, 첨성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렇듯 첨성대의 위치는 여러 왕능의 위치와 천문현상에 연계되어 구심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도 하거나 정자석들의 짜임새는 정수별자리의 문자인 우물정의 형태와 같다. 그 형태는 낙서(洛書)의 의미를 지니기도 하며, 특히 신라에도 전해진 것으로 믿어지는 Schitho-Syberia 문화로서 분묘의 형식과도 같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Scythai 족들의 분묘가 적석목곽분이며 분묘 속에 4개의 기둥을 세우고 도리를 우물정자형으로 짠다음 지붕을 올려 집을 짓고 그 속에 관을 안치한 후 돌로 덮어 봉토하는데, 도리

를 우물정자형으로 짜는 것이 낙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중앙이 오황극(五皇極)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2중 3중의 의미적 코드(Code)를 지니게 하여 시조 박혁거세의 오능과 연관시켜 상징성을 드높인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 상징성은 회전곡면의 마지막 단 27단에서 극을 이룬다.

27단은 선덕여왕을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서 여왕이 27대왕이라는 것을 상징한 것 뿐이 아니라 27이라는 수는 27:364:365의 3재로서의 의미를 내포하는 동시에 27은 인이며, 선덕여왕을 상징하고 364는 지로서 지상에 있는 첨성대의 회전곡면의 돌의 개수 또는 첨성대 그 자체를 상징하고, 365는 천으로서 1년의 날수 또는 하늘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결하여 27단의 돌들의 크기는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는 별들의 방위각과 잘 일치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기(史記) 천관서(天官書)에는 북극성을 천극성(天極星)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中宮 天極星 其一明者 太一常居也……’

즉, 북극성이 하늘의 궁전에서 중궁에 해당하고 제일 밝은 것으로서 천제(天帝)가 항상 거처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북두칠성에 대해서는 ‘……斗爲帝車 運于中央 臨制四鄉 分陰陽 建四時 均五行 移節度 定諸紀 皆繫於斗……’

즉, 북두칠성은 천제가 타고다니는 제차(帝車)이며, 북극성에서 타고 나와 사방을 다스리는데 임하게 되어 밤과 낮을 나누고 한 해의 네 철을 정한다. 그리하여 삼라만상의 생성(生成)을 고르게 하고 절도를 옮기면서 모든 법도를 정하는데 그 모든 일이 북두칠성에 이어진다는 것이다.

27단은 바로 위와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옛 천문관측이 점성술을 바탕으로 깔고 있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첨성대는 순수한 과학적 기능만을 지닐수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바 여러가지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여러가지 상징

성을 지니게 되면, 그것은 기념성을 또한 개괄(概括)한다. 그러므로 첨성대는 신라의 국도(國都) 쇠울(金城)의 Land Mark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한편, 첨성대의 위치는 천문관측에서 천구의 중심이 된다. 그로부터 점성술에 의하여 왕능들이 자리잡게 되었으므로 영혼들은 별자리를 길잡이로 하여 내세에서 신라를 가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첨성대는 제천(祭天)의 장(場)으로서의 역할을 의당하게 되는 것이다.

선사시대에서도 신에 제물을 바칠 때는 정확한 천문관측이 이루어져 위치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재앙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첨성대가 제천의 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관념의 소산일 것이다.

그렇지가 않고 단순한 제천의 장으로서 첨성대를 세웠다고 하면, 첨성대의 형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밝혀져야 한다.

한편, 불교의 상징물도 될 수 있다는 것은 법흥왕의 왕능과 토함산과 첨성대가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첨성대의 회전곡면 모선은 고대인도예술 특히 종교예술에 많이 나타나는 기법으로서 3굴법(3屈法)의 표현 그대로라는 점이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3굴법이라는 것은 조형에 황도곡선(黃道曲線)을 내재시키는 것이다. 석굴암의 금강역사상이라든가 보살상이 그 좋은 예이다. 말하자면 태양이 1년에 지나가는 모습이 조형에 담기는 것이다. 그러한 하늘을 뜻하는 형태 속에 법흥왕의 상징성도 내재해 있으므로 불교의 상징물이 될 수도 있다. 다른 하나의 예로 불국사 다보탑 역시 3굴법의 기법이 스며 있는 불구의 걸작인 것이다.

그렇듯 첨성대는 앞에서 말한 바 1차적 기능으로서 지극히 독창적인 천문관측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동시에 2차적 기능의 복합체로서는 상징성, 기념성, 제천의 장, 불교의 상징물, 도시형성에 있어서 하나의 Land Mark 등의 기능을 지니며, 두 기능이 표리와 같이 융합되어 이루어진 조영물이라는 것이다.

5. 옛 조형에 나타나는 곡선, 기타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는 건

축적 코드의 여러 종류를 정의하기를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기술적 코드

손쉬운 예를 들면 건축공학에서 취급하는 종류의 분절(分節)이 이 범주에 속한다. 건축형태는 보, 바닥의 구조, 기둥, 판, 철근콘크리트의 각 요소, 단열재, 배선 등등으로 분해된다.

구조적(또는 기술적)기능 또는 기술 자체가 그러한 것이 되는 경우의 과정 이외는 그러한 코드화 레벨에서는 전달적 「문맥」은 없다. 다만 구조적 논리, 또는 건축 및 건축의 의미작용의 배후에 깔려있는 구조적 조건만이 있을 뿐이다.

그에서는 여전히 의미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미작용의 어떤 형식적 조건이 있어 그 조건이 일상언어에서의 2차분절과 어딘가 유사한 것 같이 보이게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에 부연하고 싶은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가령 인공이 가해지지 않고 천연적으로 다듬어진 바위 하나를 정원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택하였다고 하자. 그것은 하나의 소재에 지나지 않지만 인간은 그것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구성될 「문맥」을 미리 엮으면서 그것을 택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그 바위는 태고로부터 흘러온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그 옆에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그 앞에 자그마한 연못을 파면 하나의 축소된 자연이 재생되고 그것에서 무한한 「문맥」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선상(先想)하는 것이다.

또, 건축형태의 각요소가 가공될 때 그것은 총체적으로 구성되는 어떤 「문맥」속의 어떤 역할을 하는 요소라는 것을 또한 선상한다. 그리하여 예를 들면 다듬어 놓은 재목을 보고 하나는 어디에 쓰일 보, 하나는 전면에 쓰일 기둥이라고 판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떤 공간이 구성되어 어떤 「문맥」을 이룰 것이라는 전제 밑에서 각 요소가 언어에서 낱말과 같이 의미를 지니게 되며 「문맥」의 구성요소가 되는 것이다.

만일에 다듬어 놓은 기둥의 형태가 배흘림(Entasis)의 아름다운 곡선을 지

녔다고 하면, 아직 총체적인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구성될 「문맥」을 관습에 의하여 예기하게 된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것을 보로 쓰고 그 밑에 천정을 달아낼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안 할 것이다.

그 배흘림의 곡선은 기하학적으로는 현수곡선(懸重曲線)이며, 건축공학적으로는 실을 처지게 하고 그 곡선에 따라 형판(型板)을 만들어 그것으로써 기둥을 다듬을 때 기준으로 하였다고 하면, 그 형판에 나타난 현수곡선은 기술적 코드이며, 재목에 다듬어진 현수곡선은 뒤에서 설명한 통사적 코드이고, 그 현수곡선은 다른아닌 황도곡선의 하나의 변형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늘의 선이라는 의미를 지녀 의미적 코드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앞으로 공간이 구성되었을 때 각요소가 고귀하고 영원한 하늘을 상징하는 곡선에 충만하여 사람의 마음에 육박한다는 Pragmatic한 측면을 지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네르비(Pier Luigi Nervi)라든가 마이야르(Robert Maillart)의 작품들, 또는 오토(Frei Otto)의 막구조(膜構造)에 의한 작품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그것들은 표현을 위하여 고도로 농축된 기술적 코드의 선택 또는 기술적 해결을 한 것이지 공학의 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한 단순한 목적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러한 까닭에 기술적 코드라는 것은 표현을 위한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방법을 위한 것이며, 표현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여야만 된다고 본다.

2. 통사적 코드(統辭的 코드, Syntactic Code)

공간의 형식으로 분절하는데 관한 도상학적(圖像學的) 코드로서 예시되는, 예를 들면 원형평면, 그리이스식 십자형 평면, 「개방형」평면, 미로(迷路), 고층화 등등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다. 그러나 고찰되어야 할 다른 통사적 관습도 있는 것은 분명하다. (계단은 일반적으로 창을 통하지 않는 것이며, 침실은 대개 욕실에 인접해 있는 것 등이 그러한 경우이다.)'

위와 같이 에코는 말하였으나 필자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확대해석하고

자 한다. 즉, 공간의 형식으로 분절하는 경우뿐이 아니라 모든 조형을 분절하는데 관한 도상학적 코드를 통사적 코드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게 확대해석한 것에 대해서 더욱 상세한 설명을 일반언어학에서부터 시작하여야 될 것이다.

인류가 언어를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아득한 옛날이며 언제부터인가는 알길이 없다. 그 언어가 있는 다음에 그것의 문법적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인 문법학이 생기게 된 것이다.

한편, 모든 여러 종류의 문법학의 토대가 되는 것은 기술문법(記述文法, Descriptive Grammar)이라고 하며, 기술문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언어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설명하려는 연구방법이며, 말의 본이 될만 하건 않건, 잘못된 말이건, 일시적으로 나타난 말이건, 하여간 그것이 일단 언어집단의 구성원의 입에 오르게 될 것 같으면, 모조리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그러한 어형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설명하려는 것이다.'⁽¹⁾

그리하여 기술문법의 연구대상으로서의 문법적 현상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형태론(形態論, Morphology)과 통사론(統辭論, Syntax)으로 구별된다.

형태론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집」 '송아지' 등은 한 단어가 한 형태소(形態素, Morpheme)로 형성된 것이나 '가겠습니다' '국물' 등은 둘 이상의 형태소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형태소의 됨됨이, 그 종류, 그리고 그것이 결합되어 단어를 형성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부분이다.

그 단어가 결합하여 구(句, Phrase)나 월(Sentence)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단어의 결합 방법에 대한 연구가 통사론의 부분이다.

그런데 모든 언어에 적용될 수 있는 단어의 정의 또는 한계를 규정하는 방법에는 의견의 차이가 크다. 하물며 기호론은 거의 모든 것을 기호로 간주하는 까닭에 그것을 조형에 관한 분석에 적용할 때 포괄할 수 있는 한계까지 확대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통사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한다.

어떤 하나의 언어형식을 분절한다. 예를 들면 「사람이 범을 잡았다」라는

언어형식을 절단(切斷, Découpage)한다. 즉, 사람이 / 범을 잡았다.

위 두 절단된 부분들은 단독으로 말하더라도 충분히 그 뜻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는 한 월의 구실을 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그러할 때 각 부분을 자립형식(自立形式)이라고 하며, 절단은 1 차분절이라고 한다. 그것을 2 차분절하면

사람 / 이 범 / 을 잡 / 았 / 다.

위와 같이 되어 사람이라든가 범은 자립형식이나 나머지는 일정한 음과 일정한 의미 내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단독으로는 쓰일 수 없고, 반듯이 어떠한 다른 언어형식에 종속되어야 한다. 그러한 언어형식을 구속형식(拘束形式)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언어의 집적적 선분의 어느 것도 구속형식이 아닌 다시 말하여 자립형식인 언어형식을 ‘통사론적 구성’이라고 하며, 통사론적 구성을 연구하는 부문이 통사론(Syntax)이다.⁽²⁾

그리하여 논리적 실증주의(論理的實証主義) 철학에서는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전통적인 형이상학의 많은 문제가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식내

용이 없다고 단정하였다. 즉, 형이상학적 문장은 의문장(擬文章)이고, 서술문장(敘述文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그 속의 말이 강하고 정서적인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주장하는 것 같기는 하나 실지에 있어서는 아무 주장이나 명제(命題)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진(眞)도 위(僞)도 아니며 무의미한 것으로서 형이상학의 문장이나 물음은 비인식적이라는 것이다.⁽³⁾

그리하여 언어의 표현의 논리적 구조를 다루기 위하여 언어학의 Syntax와는 구별되나 논리적 통사론(Logical Syntax)으로써 체계를 세웠다. 그에 따라 논리적 의미론(Logical Semantics)을 확립하고 Pragmatism 즉 과학을 존중하며 과학적 방법과 과학적 사상을 기초로 철학하는 이론적 입각점인 Pragmatics의 체계확립이 현대철학의 하나의 큰 흐름이 된 것이다.

그에 수반하여 예술기호론(藝術記號論) 역시 그와 같은 체계를 세우는 것이다.

모든 조형에는 그것을 분절하면 통사적 측면, 의미적 측면, 또 Pragmatic

한 측면이 있는 것이다. 그것들이 서로 융화되어 하나의 작품으로서 작가와 보는 이로 하여금 공동체함을 하며 심금을 울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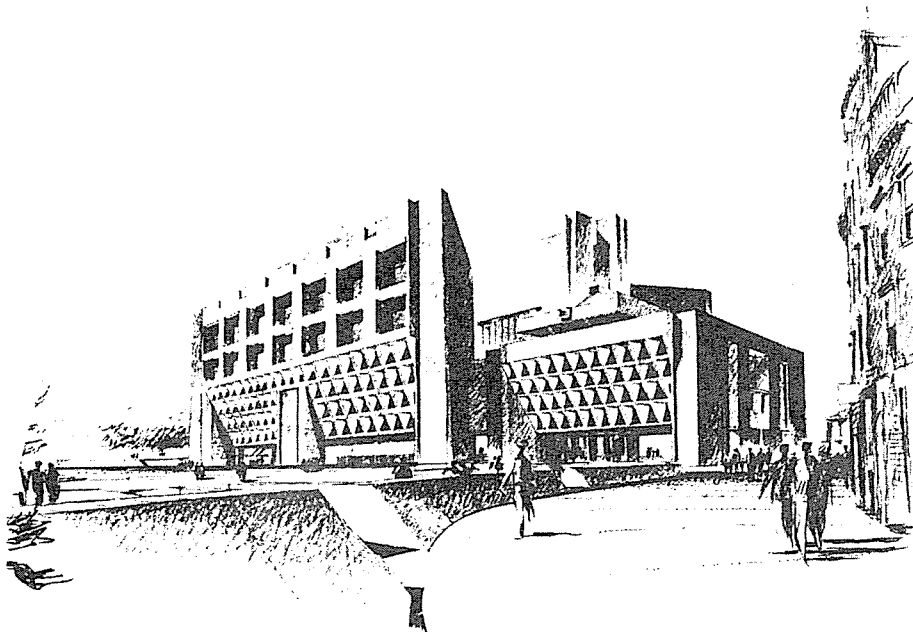
회화를 예로 들면 바탕에 깔려있는 구도라든가 그에 따라 구성된 요소간의 관계로서의 선, 면, 입체 등등이 통사적 코드인 것이다.

그러므로 앞에서의 예와 같이 기둥의 배흘림은 현수곡선이라는 통사적 코드, 또는 3 굴법의 변형의 하나이며, 의미적(意味的, Semantic) 코드로서는 황도곡선의 변형, 또는 고귀하고 영원한 하늘의 곡선이라는 것이고, 서구인들은 Entasis를 인체의 비율에서 발상한 것이라고 하나 동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동양건축의 가장 지배적인 요소로서 지붕의 처마곡선 또한 그러하며, 그것들이 구성되었을 때는 Pragmatic한 측면에서 동양의 전통적인 사상인 천인일체사상(天人一體思想)이 구현된다

주 (1), (2) 許 雄著: 言語學概論

주 (3) 서울大學校編: 大學哲學



청탁한번 불신받고 청탁두번 파멸온다